

Atmosphere X I .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통로입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이다. ‘하나님과 관계(교제) 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라는 말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앎이 아니다. 내 인격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동의’하고 있는 전적인 앎의 상태를 말한다. 인격적 동의로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앎’에서 끝나지 않는다. 확신 가운데 그 사실을 믿고 있다. 그 믿음이 삶의 확신이 된다(방향성, 우선순위, 정체성, 계획 등 모든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인격이 동의된 ‘틀림없는 상태’를 말한다. 절대 믿음을 말한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성경에서 약속한 풍성한 영적생활에 이를 수 있다. 대부분의 신앙 갈등은 ‘아는것과 믿는것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 둘 간극이 클수록 신앙의 딜레마는 깊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데 있어서, 내가 아는 바를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할 수 있게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말이다.

2. 시험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위기가 올 때가 있다. 그 때가 ‘시험’의 때이다. 시험은 대부분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함께 온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일까? 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시험에 대한 마음의 태도는 중요하다.

(1) 우리 안에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준다. 마음의 상태에 대한 시험이다, 이 시험은 우리 마음안에 있는 ‘의도’를 보여주는 시험이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이다. 시험은 사람의 마음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며 알 수 있게 한다.

[사무엘하 6:8-9]

8 여호와께서 옷사를 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그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사 사건을 일으키셨다.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옷사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다윗의 마음안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을 드러내었다.

하나님은 옷사 시험을 통해서 다윗안에 하나님을 향한 외형적 형식이 아닌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만들어진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다. (형식있는 예배가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삼만명이라는 형식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벰에돔 한 사람의 집에 임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2)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다.

[열왕기하 13:16-19]

16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17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18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세 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19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세 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겨우 세 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왕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한다(18절). 왕은 화살을 집어 땅을 세 번 친다. 선지자는 화를 내며 땅을 대여섯 번 쳤다면 적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결과는 세 번 친 만큼의 승리만 얻는다. 만약에 엘리사가 왜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는지를 왕이 알았다면, 그는 세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라도 땅을 쳤을 것이다.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땅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왕의 열정을 보려고 했던 것이다. 엘리사는 자세한 설명없이 요아스에게 시험 과제를 주었다. 이 과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표면으로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열정 없는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요아스의 실수는,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기 전에 엘리사가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말한 사건이었다(16절). 그리고 화살을 쏘았을 때,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증명해주었다. 화살을 쏘았을 뿐인데, 엘리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증표임을 말해주었다. 만약 요아스가 조금 더 집중해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면, 화살을 세 번만 치는 수동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화살을 치는 시험은 요아스의 마음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처럼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3. 시험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

[야고보서 1:2-3, 12]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줄 너희가 앎이라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험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안에 있는 것이다. (2절)

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2절)" 고 말씀하신다. 왜 시험을 주시는가? 어떤 시험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다. 어렵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어떤 환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시험이 있는가? 기쁘게 여기라. 시험의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라.

(2) 믿음의 시련은 '인내' 를 선물로 준다. (3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시험' 이 아니라 '시련' 이다. 훈련과 연단이라는 말이다. 훈련과 연단의 결과는 무엇인가? 더 강인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강인함을 위해 '시련'을 주신다. 강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시련의 결과는 '인내' 를 선물로 얻는다.

'인내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는 마지막 결정버튼이다. 인내는, 내 힘은 약해지고 포기되어지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며, 성숙한 신앙은 '인내의 능력'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인내는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다. 인내는 모든 상황을 견디며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늘의 선물이다. 은총이다.

다윗은 성품이 좋아서 견딘 것이 아니다. 그는 시련을 통해서 하늘의 선물을 받았다. 그것이 인내이다. 인내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연함' 이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인내심'이 있다. 그들은 의연하다. 다니엘, 요셉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모두에게 시련이 있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인내를 하늘로부터 선물로 얻었고, 그 인내심 안에 있는 의연함이 결국 이 땅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권세'를 갖게 했다.

(3) 시련을 견딘 자는, 결국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 (12절)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시련으로 정리한다. 시련 속에서 '인내'를 선물로 얻는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더 의연해지며,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룬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신다(12절).

면류관이란 무엇인가? 가장 큰 영광의 결과이다. 영광은 무엇인가? 모든 일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이다. 가장 기쁜 상태이다. 기쁨의 정점이 바로 '영광'이다. 더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시련을 견딘 사람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올림픽의 마지막 시상대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 승리자를 볼 수 있다. 연습하고, 땀 흘리고, 인내했던 모든 과정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간이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혼자 달려왔는데, 그 모든 여정이 영광으로 보상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모든 것이 변화된다. 실제 승리의 기적과 증거들이 나타난다.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이 영광 앞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며, 막혔던 일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게 하고 싶어하신다. 다윗의 시련을 보라.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

'시험'이 있는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간증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시험을 통해 영광의 증거를 얻으라.

예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 모두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 이 진리가 내 것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